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KIA 조갈량의 '믿을맨'

〈팬들이 조범현 감독에 부여준 별명〉



나지완·안치홍·양현종·손영민·곽정철 등 영건들 변신

감독의 믿음에 '선의 경쟁'... 팀 위기때 마다 제역할 '톡톡'

‘조범현호’의 조용한 변화가 KIA의 극적인 변신을 이끌었다. 출범 2년째를 맞은 ‘조범현호’가 지난해 6위에서 올 시즌 1위로 경쟁 뛰어 오르며 프로야구 판도를 좌우했다. 지난해 팬들의 ‘우승 조급증’ 탓에 사퇴론에 휘말리기도 했던 조범현 감독은 팀의 승승장구속에 ‘조갈량’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달라진 1년, 안치홍·나지완 ‘신에 거포’와 양현종·손영민·곽정철로 구성된 ‘짧은 마운드’가 변화와 인내로 대변되는 조 감독의 야구를 말한다. 지난해 나지완은 시범경기에서 필살타를 때리며 ‘신에 거포’에 목말라 하던 KIA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 감독은 나지완을 시즌 개막전 4번 타자로 배치하며 세대교체의 신호

탄을 쏘아올렸다. 하지만 이 도전은 개막 첫 한달도 안돼 나지완이 2군으로 추락하면서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후 2군에서 절치부심했던 나지완은 후반기 불방망이를 선보이며 4강 탈락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올 시즌도 지난해와 비슷한 출발이었다. 나지완은 타격슬럼프에 영성난 수비,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팬들에게 애증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세대교체의 키를 쥔 나지완은 조 감독의 무한한 인내속에 23개의 홈런을 터트렸다. 안치홍도 조 감독의 인내를 시험한 선수 중 하나다. 안치홍은 시범경기에서 0.073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극도로 부진했지만,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조 감독은 1군으로 끌어안았다.

올스타전 이후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안치홍은 14개의 홈런으로 프로야구 역사상 5번째 10대 두자릿수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거칠던 수비도 안정되면서 정제됐던 KIA 내야의 지각변동을 이끌었다. 양현종·곽정철·손영민 세 영건들도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거듭났다. 지난해 이들은 조 감독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하던 갈 길 먼 유망주뿐이었다. 불안한 계구와 경험부족으로 마운드를 휘어잡지 못하던 세 투수의 등판은 본인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곤욕이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마운드에서 흔들리기만 했던 세 투수는 이제 박빙의 승부를 결정 줄 아는

싸움꾼으로 변신했다. 양현종은 12승으로 김정수·신동수에 이어 팀 역대 세번째로 두자릿수 승을 기록한 좌완 투수가 됐고, ‘돌직구’ 곽정철은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었다. 심커로 위력이 더해진 언더 손영민도 공격적인 투구로 팀의 승리를 뒤흔었다. 인내를 바탕으로 키워진 젊은 선수들은 팀 1위의 디펜들이자 변화의 중심점이 됐다. 이 선수들의 성장이 변화와 경쟁을 강조했던 조 감독의 야구를 비로소 본 무대로 올려놓은 것이다. 투·타에서 보이지 않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KIA는 조금씩 조금씩 강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내부에서 답을 찾은 KIA는 세대교체와 실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양현종〉



〈손영민〉



〈안치홍〉



〈곽정철〉

신지에 5관왕 향해 '굿샷'

오늘 LPGA 챌린지 출전...신인·다승·상금왕에 올해의 선수·최저타상도 노려

‘골프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사진)가 5관왕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재촉한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컵 연선에서 3위를 차지했던 신지에는 24일부터 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빌블랙호크 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리는 CVS/파머시 LPGA 챌린지에 출전한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36점으로 118점의 크리스티 커(미국)에 앞서 있는 신지에는 상금 부문에서도 160만 달러로 2위 미야자토 아이(일본)의 145만 달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미 신인상 부문에서는 1천344점으로 2위 위성미(20·나이키골프)의 684점을 넘겨 앞서는 신지에는 주요 부문 가운데서 최저타수와 세계 랭킹에서만 1위 자리를 다른 선수에 내주고 있는 상태다. 최저타수에서 커(70.2타), 미야자토(70.328타)에 이어 3위(70.333타)를 달리고 있는 신지에는 이번 대회에 커와 미야자토가 모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격차를 좁힐 기회를 잡은 셈이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 우승 타수 4위 10언더파, 2007년 11언더파, 2006년 15언더파였기 때문에 신지에가 두자릿수 언더파를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2년간 성적을 토대로 매겨지는 세계 랭킹에서도 평균 8.96(2위)의 신지에는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10.61과 격차가 큰 편이지만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따라잡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신지에 자신도 최근 인터뷰에서 “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기회도 온 것 같다”면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어 이번 대회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 신지에가 올해의 선수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받으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신지에·최나연 한·일대항전 '태극마크'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일여자프로골프 대항전’이 출전할 국가대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리는 이 대회는 12월4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장에서 총상금 6천150만엔(한화 8억1천만원)을 걸고 열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3일 발표한 한일전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는 신지에(21·미래에셋) 등 상위 4명의 선발이 확정됐다.

이후 신지에가 두 번째가 된다. 신지에와 동갑 친구 김인경(21·하나금융)은 이번 대회에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이다. 통스드레스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열린 지난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던 김인경은 올해 6월 스테이트팜 클래식 우승 이후 개인 3승째에 도전한다. 신지에는 웬디 워드(미국),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삼성월드컵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나연(22·SK텔레콤)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연합뉴스

한국 대표팀은 LPGA 투어에서 포인트 상위 5명, 일본LPGA에서 3명, KLPGA에서 4명, 스폰서 초청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LPGA 투어의 경우 10월 초에 끝나는 나비스타 LPGA 클래식까지 한일전 포인트가 주어지는 데 현재까지 신지에가 1천73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김인경(21·하나금융), 최나연(22·SK텔레콤), 지은희(23·휠라코리아), 오지영(21·마벨러스)이 대표 선발 커트 라인인 5위까지 올라 있다. /연합뉴스



야구 즐기고 승용차 타고

KIA 내일 사은행사

KIA타이거즈가 홈경기 최대 관중 돌파 기념 사은행사를 개최한다. KIA는 히어로즈와의 시즌 최종전이 벌어지는 25일 입장객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 모닝을 경품으로 내건다. 경품 추첨은 5회말 종료후 이뤄지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아자동차 쏘울 할인쿠폰 15매와 롯데상품권 20매, 대명리조트 콘도 이용권 20매, CNK 안마기 20매, 함평 레드와인 20개 등 다양한 경품이

마련됐다. 한편 23일 현재 KIA의 홈 누적관중은 역대 최대 관중을 동원했던 96년 46만8천922명보다 20%증가한 56만1천800명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8천778명에 이른다. 또 23일 현재 20차례 매진을 기록해 95년 작성된 한 시즌 최대 매진기록(9차례)도 넘어섰다. 올 시즌 원정 6경기 누적관중수 역시 124만219명으로 8개 구단 최고의 원정 관중을 동원하며 ‘전국구 구단’으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할타 걱정마”

디트로이트전 3안타 맹활약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안타를 때리면서 다시 몰아치기를 시작했다.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4번 타석에 들어서 3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1회말 디트로이트 선발투수 에드윈 잭슨의 시속 156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좌중간을 가르는 깨끗한 2루타를 때렸지만 후속타가 터지

지 않아 홈을 밟지는 못했다. 3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6회에도 잭슨에게 좌전안타를 뽑아냈으나 다음 타자인 조니 페달타가 3루수 앞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아웃됐다. 추신수는 0-3으로 뒤진 8회 1사 1루에서 바뀐 투수 바비 세이의 높은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때렸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안타 뒤 트레비스 해프너와 제이미 캐롤이 연속으로 볼넷을 골라 내면서 1점을 따라붙였다. 추신수의 타율은 0.300에서 0.303으로 올랐다. /연합뉴스